

34장(2)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알려주신 것과 나타난 것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을 회복하는 큰일을 하실 때에 여호와와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아올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셨다. 유월절과 무교절, 안식일, 칠칠절과 수장절에 관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다.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전해 주면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한 사실을 알려 준다.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르러야 할 영광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1. 절기들과 헌상 (34:18-26)

1) 절기들 (34:18-24)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여호와께 나아와서 경배를 드리게 하였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진 밖에 회막을 두셨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와서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다(34:18-20).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다. 애굽의 사람과 가축의 장자나 첫째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사망을 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출 4:22; 22:29) 그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관계를 표현하였다. 이스라엘이 만아들을 드리는 것을 레위 사람의 봉사로 대신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하였고, 그들이 바친 것으로 레위인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다(신 16:17).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셨다(34:21).

또한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34:22), 두 절기는 농사의 절기이다. 농번기의 바쁜 시기에 먼저 여호와께 나아와서 경배하게 하였다. 그들이 거둔 추수는 여호와와 복 주심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세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출 34:23-24. 참조 출 23:14-17).

2) 좋은 것을 바침 (34:25-26)

유월절에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않게 하셨다. 죄가 없이 새로 드리도록 절기 희생의 기름은 다 드렸고, 남겨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토지 소산의 처음 것, 곧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일 년 농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농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다.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

염소 새끼를 자기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 자기가 먹고 자라야 할 젖으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2. 언약을 세움 (34:27)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갱신한 언약을 기록해 두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해 주셨다. 이제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여 확정된 것은 변함이 없이 시행될 것이다.

3.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 (34:28-35)

모세는 여호와와 40일 밤낮을 함께 있었는데 그 기간에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생명이신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떡과 물도 필요가 없는 경계에서 살아간 것이다. 모세의 40일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도 교훈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생생하게 알려 주셨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먹고마시는 일을 넘어서는 일이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닮아 갔다.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 (34:28)가 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율법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로 변하여 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33:20) 하나님과 대면한 중보자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부분을 보았다.

여호와 앞에서 백성에게 나아왔을 때에 백성은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해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 주었다. 그들에게 말을 전한 다음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고, 백성 가운데 거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직분을 행사하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백성은 증재된 그 영광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본다.

묵상과 실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 - 생명과 영광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첫째, 여호와와 함께 있는 40주야 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생명이신 여호와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모세는 먹고사는 것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모세는 먼저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다. 후일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신 8:3).

둘째,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는 자기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그는 점점 더 여호와의 영광으로 변하여 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한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으나 수건으로 가린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옛언약과 새언약을 대비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둡게 된 것을 수건으로 비유하여서 말하고, 새언약에 속한 우리가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뵈면서 변모할 것이고, 장치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뵈면서 그분처럼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요일 3:2). 그날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바울 사도는 새언약과 영광으로 변모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교회에 새언약의 영광을 알려 주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언약의 말씀이 죄인을 향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세상에 전파해야 할 메시지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본다. 영광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

34장 (2) 익힘 문제

1. 1)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 년에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나아간 절기들은 무엇입니까? (18-24절)
2)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소산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까? (26절)
2. 모세가 둘째 증거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머문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28절)
3. 모세가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 1)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절)
 - 2)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
 - 3) 여호와의 비려 들어가고 나와서 전할 때 외에 모세는 얼굴을 어떻게 하고 지냈습니까? (35절)